자존감 회복 vs 또 다른 상처…양날의 칼 '복수'

복수의 심리학

스티븐 파인먼 지음·이재경 옮김

살아가면서 단 한번이라도 복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복수를 꿈꾼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정치인이 철창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끼거나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범인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앞서의 예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된 복수심리다. 이와 달리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복수심리가 발동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 커피에 침 뱉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헤어졌던 애인이 곤경에 빠졌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인 복수는 쉽사리 용인되지 않는다. 복수는 억제되고 참아야 하는 행위로 인식돼 왔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내면에는 복수심만 쌓이고 이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영국 배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인 스티븐 파이먼은 복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일차적인 욕구라고 한다. 그가 이번에 펴낸 '복수의 심리학'은 "우리는 왜 용서보다 복수에 영광하는가"를 파고든다. 한마디로 책은 문학과 종교, 정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억눌린 본능, 복수의 문화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년 간 자신을 감금했던 사람을 죽이기 위해 찾아나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올드보이'.

저자는 유인원들의 복수 행태부터 오늘의 사이버 테러, 정치 보복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다양한 사례를 아우른다. 이를 통해 복수 충동에 담긴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볼 뿐 아니라 복수의 순기능 등도 조명한다.

저자는 복수를 자신과 사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는 근원적인 욕망으로 규정한다. 비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도 자존감이 상하거나 위협을 당하면 되갚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게 된다. 물론 복수심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복수를 싸잡아 죄악시하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사실 인간관계는 도덕적 비난이나 법의 견책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소한 대거리를 전략적으로 수반한다. 복수가 잃은 것 자체(재산, 가족, 친구) 등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복수를 통해 부수적 상실(자부심, 명예) 등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복수를 노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복수는 인간의 생물학적 기질이며 원초적 본능이다. 사실 고대시대부터 개인, 집단의 위협에 대한 반응은 복수로 표출됐다. 부족들은 재산을 침탈하는 자를 응징했고, 국가주의 시대에도 '눈에는 눈'으로 알려진 보복법이 있었다. 종교는 대체로 복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원리주의자들은 '신의 심판'이라며 복수 행위를 정당화한다. 성전으로 알려진 지하드, 십자군 전쟁, 중세 마녀 심판 등이 그 예다.

이에 반해 일반 민중들은 복수를 소재로 하는 작품에 열광했다. 고대 그리스시대 '오디세이'부터 셰익스피어 시대를 거쳐 할리우드 영화에 이르기까지 문화콘텐츠에는 복수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넘쳐난다.

특히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나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내 갈등은 점차 심각한 양상으로 앙갚음이 행해지고 인터넷 발달로 개인적 비난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신종 형태의 보복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생활에서 복수를 지워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자는 책을 통해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복수의 민낯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생각하게 한다.

〈반니·1만4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원사가 된 철학자의 땅·식물·문화 이야기

땅의 예찬-정원으로의 여행

한병철 지음·안인희 옮김

그는 베를린의 겨울을 '혹독하다 못해 파괴적'이라고 말한다. '차라리 지옥불이 더 견디기가 나을 것'이라고도 했다.

베를린의 겨울을 버티며 그는 겨울 한가운데서도 밝게 꽃피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 '어느 날 땅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동경과 날카로운 욕구'를 느낀 그는 매일 정원 일을 하기로 마음 먹고 3년 동안 '비원'이라 이름 지은 정원에서 일했다.

독일과 한국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피로사회'를 비롯해 '투명사회', '아름다움의 구원', '에로스의 종말' 등을 펴낸 철학자 한병철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가 '땅의 예찬-정원으로의 여행'을 펴냈다. 독일어로 현지 출간됐으며 안인희씨가 번역했다.

저자에게 정원 일은 고요한 명상, 고요함 속에 머무는 일이었다. 정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땅에 대해, 그 현혹하는 아름다움에 점점 더 존경심을 품게 됐다.

저자는 이 책의 많은 구절이 '땅과 자연을 향한 기도이자 고백, 곧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한다.

정원에서 일하게 된 뒤로 작가는 시간을 '다르게' 느끼게 됐다고 말한다. 시간은 훨씬 더 느리게 흐르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다. 정원은 그에게 구원의 장소이고 땅으로 돌아가기란 바로 행복으로 돌아가기다.

책에는 한겨울에도 꿋꿋이 피어나는 데이지꽃, 겨울바람꽃을 비롯해 그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미선나무, 옥잠화, 아네모네 등 다양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그가 즐겨 부른다는 '겨울 나그네'를 비롯한 슈베르트의 음악들과 그에 대한 아도르노의 해석, 슈만의 '시인의 사랑',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 소로의 '월든',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실러의 시까지 다양한 책과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육체 노동을 하면서 비로소 땅을 내밀히 알게 됐다는 저자는 "정원 '일'은 알맞은 표현이 아니다.

일 이란 원래 괴로움, 고생을 뜻하는데 정원사의 일은 행복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뒷부분에는 '정원사의 일기'를 실었다. 2016년 7월 31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의 기록이다. 저자의 사적인 일상을 만나는 것도 흥미롭다.

마지막 일기 대목. "땅은 아름답다. 아니 거의 마법을 지녔다. 우리는 땅을 보호해야한다. 보호하는 태도로 대하고, 잔인하게 착취하는 대신 찬양해야 한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보호하라는 의무를 지운다. 나는 그것을 배웠고 경험했다."

독일 영화감독이자 화가인 이사벨라 그레서가 그린 24컷의 나무와 꽃 일러스트가 함께 실렸다.

〈김영사·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푸틴 권력의 논리="이게 다 푸틴 때문이다." 서방의 관점에선 선거 조작에서부터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까지 푸틴의 권력욕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푸틴을 세계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이며, 새로운 냉전의 서막을 열게 한 '악의 화신'으로 여긴다. "푸틴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서구 언론인"으로 평가받는 독일 기자이자 책의 저자인 후베르트는 푸틴과 5년을 함께 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취재했다. 저자는 서방의 일방적인 시각을 부정하며 동서 간의 타협은 두 문화에 대한 주권을 상호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식갤러리·1만5800원〉

▲250만 분의 1=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은 250만 종. 인간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은 곧 지구를 사랑해야 할 250만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이정모의 자연사 이야기를 담은 책은 한때 지구에 살았거나 지금도 살고 있는 생명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책은 38억년 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펼친 삶의 드라마로, 각각의 생명은 모두 제 삶의 주인공이고, 놀라운 생명의 사연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공생하지 않으면 멸종한다"는 지구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나무나무·1만6000원〉

▲이에야스, 에도를 세우다='주간아사히'가 뽑은 최고의 역사소설이자 제158회 나오키상 수상 작품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건설을 그린 책은 2016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아마존재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역사소설로 꼽힌다. "에도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처음 발견한 것 같다" "장인정신이 일구어낸 도시 탄생기" 등 독자들의 끊이지 않는 찬사를 받은 만큼 탄탄한 스토리와 작가의 역사에 대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알에이치코리아·1만4800원〉

▲그리스 신화에서 사람을 읽다=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르지만 한편으로 비슷한 패턴을 지니고 있다. 책은 패턴을 9가지 유형 즉 개혁가, 조력가, 성취자, 예술가, 탐구자, 충성가, 낙천가, 도전가, 평화주의자로 나눈다. 각 유형의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만의 공포, 불안,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 등으로 힘들어하며 산다. 책은 헤라, 데메테르, 파에톤, 아프로디테, 아테나, 프시케, 에로스, 아킬레우스, 헤스티아 등 그리스 신들과 대입한 인간 유형은 물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보아스·1만4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엄마~아!=아이는 물론 어른들이 읽어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 주는 그림책이다. 늑대 구는 자신은 늑대인데 엄마는 족제비여서 항상 창피를 느낀다. 그러나 사실 족제비 엄마는 길에 버려진 구를 데려와서 사랑을 듬뿍 담아 키웠다. 우여 곡절 끝에 구는 엄마의 사랑이 혈연마저 뛰어넘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동화는 오늘날 새로운 가족 형태인 입양 가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해준다.

〈책과콩나무·1만2000원〉

▲아빠를 다루는 법=주인공 연두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 외출할 때는 항상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명장면'은 카메라를 들이대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 아빠는 그럴 때마다 "가장 소중한 것, 아름다운 순간은 눈에 담는 거야"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교훈과 육아 방식보다는 '동감'과 '감탄'이 담겨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다. 〈yeondoo·1만2000원〉

▲여우굴 괴물=속담은 예로부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전해오는 짧은 글이다. 이야기 속담 그림책 4번째 이야기 속에는 지혜로운 여우 가족이 등장한다. 여우 굴에서 새끼 여우가 태어나지만 엄마 아빠 여우는 사나운 짐승이 많기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새끼 여우 탄생을 비밀로 하려고 하는데 불행히도 여우 굴 앞을 소리 없이 지나가던 뱀이 그 소식을 알게 된다. 책에는 풍부한 의성어, 의태어와 다채로운 색감이 함께 더해져 있어 책을 읽는 재미를 준다.

〈키큰도토리·1만2000원〉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외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악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 · 가방 · 이불
"2컬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금복식당
동구 궁동 55-2(카톨릭센터 뒤)
찜탕, 계절 생선매운탕 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한솥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타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가득
동구 예술의길 31-16
동부고시학원 3층
뷔페백반 전문
대표 전육희 ☎062)222-0589

무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고전방
동구 궁동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